

'사람 우선' 도시개발사업 '순조'

전주시, 에코시티·만성·효천지구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기로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전주권 광역도시 중추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송천동과 효성동, 전마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에코시티 조성사업의 경우, 단지 내 드넓은 호수를 최대한 활용해 숲과 문화, 자연 생태가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지난달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이달 중 시설물 인수인계 및 환지 처분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오는 2018년 항공대대가 이전하는

대로 2단계 사업에 착수, 오는 2020년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항공대대 이전사업도 현재 17.5%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상태로, 시는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대대 이전지역 발전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앞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해 신도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연말 1단계 준공과 지난 2월말 2단계 준공을 마친 상태로, 현재 공원과 녹지 등 친환경 생태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막바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만성지구에 혁신도시 내 근린공원과 수변공원, 기지

및 황방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조성하고, 기지제와 지구내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횡단보도와 생태통로 2개소 주변 경관과 주변 산책로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설치할 계획이다.

전주 남서부권에서는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효천지구는 지난 2014년 말 공사에 착공해 현재 70%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친생태환경적인 효천지구 조성을 위해 지구 내 위치한 백로서식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근린공원과 삼천 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로도 설치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

기 위해 현재 효천지구 내 대로와 연계된 삼천동 세내교~중인동 교차로(대로 3-14호, 중로1-28)까지 총 3.3km 길이의 도로를 폭 20~25m의 4차선으로 확장 개설키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도 착수했다.

이는 그간의 신도시개발시 연계도로 개설이 늦어져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던 기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단지개발 및 입주 시기를 등을 고려해 보상 및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람 중심의 도시건설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가치를 실현하고,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장 전주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수단·방법 안가린 어민 소득 올리기

종패 살포 과정에서 중국산 백합 국내산 둔갑시킨 일당 검거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가 백합 종패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중국산 백합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납품하고 납품입찰에 허위로 참가한 A씨(60)를 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허위입찰에 공모한 B씨(88)와 C씨를 입찰방해 및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의 범행을 도와준 D씨(56·여)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유용업자 A씨는 2016년에 전남해양수산진흥원, 전남 신안군청에서 지역 어민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백합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에 중국산 백합 약 12톤을 납품하고 약 1억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해경에서는 이전에도 대량의 백합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국내산이라고 속여 패류수

입업체로부터 중국산 패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포대를 갈아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허위의 물품구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또 한빛원전의 경쟁입찰에서 낙찰되기 위하여 경쟁업체 B씨, C씨 등과 함께 담합해 허위입찰, 경쟁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A씨는 최저가로 낙찰하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회에 걸쳐 약 3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하기도 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백합은 외래바이러스에 의한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주변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로 패류생산량이 줄어들어 어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런 백합 종패들이 인하여 해양환경 파괴와 국민 먹거리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며 납품을 받은 관공서에서 A씨가 백합을 채취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서류로만 아닌 직접 실사 하였던 만큼 수 있고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홍준표 유세 방해 40대 덩미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술에 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유세단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만취 상태로 유세를 방해한 김모(4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전 8시 44분께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유세 중인 홍준표 후보 유세 차량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 수여 2017년 시정유공 환경관리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2일 전주시청 시정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모범 환경미화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기관 선정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모한 2017년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는 협동조합 실무자와 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별·수준별 협동조합 교육과정으로, 올해 공모에는 전북지역 4개 기관 등 전국 총 45개 기관이 선정됐다.

특히, 전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2개 과정(일반교육, 업종특화교육)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김민근 기자

'허위사실 유포' 박혜숙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2일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구민 19명에게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의료를 빼앗아갔고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19명으로 비교적 소수인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천 인도교 설치 '윤곽'

공정률 68% 9월 완료 예정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전주천 인도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 관광효과가 전주천 넘어 서학동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관광효과를 국립무형유산원과 동서학동 남고산성 등 전주천 너머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한 전주천 인도교(오목교) 설치 공사가 현재 68%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주천 인도교 설치의 지속가능한 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전주를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람의 도시' 역점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는 전주천 인도교 설치공사는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사이를 잇는 길이 86m, 폭 4m의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는 추후 명칭 정인 오는 9월까지 사

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천 인도교는 현재 교량 상판 거치가 완료된 상태로, 시는 향후 품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도교가 설치되면,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선 한옥마을 관광객의 동선인 국립무형유산원과 산성천, 남고산성 등으로 확대돼 전주가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5월 전주천 인도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스토리텔링 구상을 위한 지역주민 자문과 민간·환경단체, 역사·문화교수, 시의원 등 전문가들과 교량 디자인 등에 대한 회의 및 경관심의를 통해 인도교 디자인 및 교량형식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인도교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명칭 제정을 위한 시민공모와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도교의 명칭을 '오목교'로 결정했다. /김민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홍보대사 안재욱